

IMF시대 低소득-高물가-高세금-高실업

오직 살길은 아껴쓰기 나눠쓰기 바꿔쓰기 다시쓰기

경제성장을 3%로 하향조정, 석유 관련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율의 인상, 정부예산 삭감 및 공공투자 축소...

고용 공공투자 축소 등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년 실업률은 4~5% 안팎으로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경제연구소는 제갈실업자가 1백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폭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인상과 환율상승은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공산품 가격을 자극,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3일 서울인력은행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채용박람회' 1천5백명을 뽑는 박람회에 학생·퇴직자·주부 등 6천여명이 몰려 고용불안을 실감케 했다.

세금 정부와 IMF의 합의에 따라 석유관련 특세 및 교통세율이 인상된다. IMF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4조5천억원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보호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가계 임금의 삭감 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업대란 속에 임금인상 억제와

물가불안 세금증가로 가계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외국여행이나 유학 등은 더욱 힘들게 된다.

IMF 한파를 이겨내는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승용차 대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기름값과 세차비,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등을 합쳐 한달에 25만원 가량 절약된다.

정성운 기자

국가경제의 도산으로 부도·감원 태풍이 불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건강을(심지어는 목숨까지) 해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만일 재물을 얻으면 그는 곧 사랑하고 아껴 지켜 보호하고 감추어 둔다.

《중야함 고원경》 욕심과 우둔함은 고칠 수 있지만 분노는 큰 재앙이니 슬기로움자는 속히 버려야 하느니라.

《중야함 고원경》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다면 걱정이 없다.

《중야함 고원경》 분노할 때는 말하지 말라. 대중 속이나 고요한 곳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성한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리라.

《중야함 고원경》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의 정열을 제어하고 평등한 지혜의 선정으로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 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중야함 고원경》 분노는 마음의 독이 되어 타고난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성병을 죽일 수 있으면 성현은 그를 칭찬할 것이니, 그의 마음에 격정은 없다.

《중야함 고원경》 성내는 자는 그 아버지와 모든 형제를 거역하고 해친다. 성내는 자는 이렇게 잔인함이 많으니라.

마음에는 세 가지 때(斯)가 있다. 탐하여 구하는 욕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진심(眞心), 그리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그것이다.

《법화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니, 도를 행할 때는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법화경》 참는 미덕에는 지계·고행도 미치지 못한다. 능히 참음을 행하는 자는 이롭게 하여 대인(大人)이라 한다.

《유교경》 능히 기갈과 한열과 고락을 참는 것을 세인(世忍)이라고 하며, 능히 계(戒) 시(施) 문(問) 지혜를 인내하여 밋고, 소견을 바르게 하여 잘못이 없으며, 불법을 믿고 꾸짖음 구타 악담 흉사 탐진치 등을 능히 다 참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을 출세인(出世忍)이라고 하느니라.

《찬제비리말씀》 다섯가지 인연이 있어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긴다. 억육에 묶이면 억육으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기고 성병과 수면과 들뜸도 또한 그러하며 의혹의 묶음으로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긴다.

《중야함 니경경》

음식의 본 과소비는 죄악...절약이 미덕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소재는 정부와 기업에 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경전이 가르치는 소비생활을 되새기자.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나 소중히 돌볼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 미국과 비교해 밝힌 우리 경제의 '거품지표'는 우리도 놀랄만큼 흥청대며 살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승용차 운행거리와 외식비 비중은 일본의 2~2.5배, 에너지소비는 미국의 2배에 달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았다.

우리경제 '거품지표' 美·日비해 소비홍청 12,000, 14,700 ▲1인1일 쓰레기 발생량(kg)=1.3, 1.0, - ▲경승용차 비중(%)=3.9, 22.6, - ▲냉장고 대체주기(년)=7.1, -, 15.0 ▲외식비(1인당 GNP대비 %)=4.9, 4.0, 3.0 ▲1인당 물소비량(리터/국민소득 1천달러)=52.8, 11.6, - ▲물류비용(물류비(%)매출액)=14.3, 8.8, 7.7 ▲신차 사용기간(년)=4.28, 5.00, - ▲에너지 소비량(톤/GDP1천달러)=0.37, 0.09, 0.15 ▲음식점 수(개/인구1천명)=10.9, 6.8, - ▲점포 수(개/1만명)=197.4, 167.5,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가 1일 일본 교토에서 1백60여 가입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세계 기후변화 협약 한국 경제에 악영향 남매로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남매로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배출가스규제 대상국 포함 여부이다.

노동부 경조금 1만원 '운동' "공직사회의 경조사 관행 합리화를 위해 실국장급은 3만원, 5급(사무원) 이하는 1만원으로 보조금 기준액을 준수하기로 했으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정보센터 5일 문을 연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사무소. 지하 1층과 3, 4층을 정보도서관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으로 꾸었다.

장애인상 사양 눈썹 신부 "상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을 했다는 이유로는 무덤에 가는 날까지 어떤 상도 받지

않았다."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가 창립10주년을 맞아 올해 장애우인권상을 제정, 첫 수상자로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관장인 백인(白銀)의 천호영신부(65)를 선정했으나, 천신부는 수상을 사양해 감동을 주고 있다.

지구당 창당대회 금품살포 돈을 주고 청중을 모은 모정당 지구당 간부가 구속됐다. 경남 경찰청은 2일 지구당 창당대회에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생략정보 휴대폰운전 사고 위험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 0.1%(단속기준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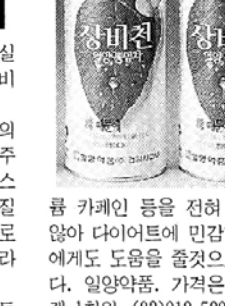
은 지구당 고위간부에게서 1백 90만원의 돈을 받아 주민 59명에게 2만~3만원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외화 밀반출사범에 '철퇴' 온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씀씀이를 줄이기 운동에 나선 가운데 거액의 외화 밀반출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터넷 전보서비스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전보를 칠 수 있는 서비스가 2일부터 시작됐다. 이용방법은 PC통신 이용자는 '01410'에 접속하면 되고, 인터넷 이용자는 전자전화번호부(eds.kornet.nm.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생상품 '뽕잎차 상비천'

당뇨 환자들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 '뽕잎차 상비천'이 출시됐다. 뽕잎, 실칸다넌, 동굴레 등의 추출물로 구성된 이 제품은 주성분인 뽕잎에 고열압, 콜레스테롤 저지기능과 혈당강하물질(DNJ)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마시기에 좋다.



불기 2542년 달력 5일 이내 남품가능 합니다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calendar. It features images of children and a landscape. Text includes: '365일 밖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업입니다.', '동자승(大·小)', '나한도(小)', '관로기획' (Kwanrogiheup),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Advertisement for Buddhist materials. It features an image of a bowl of food. Text includes: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성도절 이야기', '동지 법어, 팔족의 유래, 팔족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책으로 좋습니다.',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철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맨 뒷장에 법보시책 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크기/4x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책가/1권당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